

# 윤회관련 서적 '스테디셀러'

## 서구에서도 과학적 입증등 시도... 독자층 확대 환생사례·비교연구등 다양한 주제 20여권 나와

윤회사상이 서구사회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 81년 결립이 실시한 미국대 종교실태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구의 23%인 3천8백만명이 윤회사상을 믿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인구의 23%가 사후에 다른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고 있어 윤회사상이 서구에서도 보편적인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서구에서는 윤회사상 연구와 함께 윤회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 대단히 활발했다. <윤회·환생의 실례> <윤회의 비밀> 등으로 윤회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최근 프랑스에서 발견된 화제가 되고 있는 <윤회사상탐구> <백그리거>를 비롯해 연구는 저록목만도 단행본 1권 분량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다.

그만큼 윤회는 종교 철학 사상에서 건너뛸 수 없는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윤회는 '한 인간이 죽은 후에 그가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해 결정된 새로운 모습으로 땅 위에 다시 오는 것'으로 설명된다.

현재 서점에 나와있는 윤회관련 서는 20여종에 이른다. 최근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얻고 있는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브라이언 와이즈, 정신세계사>는 미국 정신과의사가 한 정서장애 여인을 치료하는 임상보고서로, 이른바 '전생요법'을 통한 치료과정의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와 환자가 겪는 영적인 변모 그리고 환생에 대한 확증은 삶의 신비에 대한 성찰의 기록으로도 읽힌다.

불교적 윤회관을 밝히고 있는 책으로는 <무아·윤회론의 연구> <호진, 민족사> <업사상(사사기) 기준, 대원정사> 이 책은 <업연구> <업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경서원과 흥원에서도 펴냈다. <윤회설과 후천세계> <승암, 훗날>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무아·윤회론의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본격연구서로, 호진스님의 박사학위논문용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 책은 인도의 고대문헌인 <베다>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 <아랑가> <나선비구경> 등을 통해 윤회사상의 기원과 구조 등을 그리고 양립될 수 없는 무아·윤회이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은 경전속의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회의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인 환생에 대한 사례보고서의 성격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는 <그리하여 나는 환생을 보았다> <비키 메킨지, 장경각> <환생(프란시스 스토리, 4)> 등이 있다. 84년 입적한 윤회의 불교지도자 라마 틈텐 예쉬의 환생을 비롯해 8건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환생>의 저자 프란시스 스토리에 따르면, 환생사례는 대체로 △ 불교 및 요가의 명상과 △ 최면 및 무의식에서 떠오른 전생의 기억 △ 영매자(靈媒者)에 의한 전생의

서술 등으로 유형이 나뉜다.

<윤회의 실상> <임명상, 흥원> <윤회와 전생> <이소노가미, 고려원>은 불교 기독교와 세계 각지역의 전통신앙에 내재한 윤회이론을 비교하고, 삼국유사에 나타난 윤회 기록, 이안 스티븐스(버지니아대 정신의학교수)의 환생사례를 통해 윤회 및 환생의 보편성을 입증하고 있다. <사자의 서> <백봉초 역, 경서원>는 티벳에 비견되어 오던 진언불교의 성전으로 죽음과 재탄생(전생·환생)으로 생을 바뀐다 이승을 떠난 자의 49일간



△ 삶과 죽음을 대한 의문을 풀려는 독자층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윤회관련서가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들 책이 모두 불교의 윤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종교와 학파들이 말하는 윤회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서구의 종교 또는 사상이 말하는 윤회와 불교에서의 그것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호진스님(동국대교수·불교학)은 '불교의 윤회이론은 서구의 것과는 달리 업(業)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서구사회에서의 윤회사상 보편화를 꿈 불교에 대한 호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검증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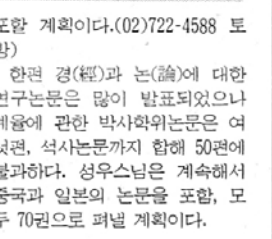
## "가르침 근본 튼튼하게 세워야죠"

### 성우스님, 계율 논문 1차 6권 출간 무료배포

석우스님이 최근 <계율학>을 도서출판 토방에서 펴냈다. 이 책은 계율관계 박사학위논문을 묶은 것으로, 자판스님의 '남북 전 율부율장 비교연구'를 비롯 '신라불교 계율사상 연구' (인환) '의적(義寂)의 보살계본소 연구' (목정배) '신라 보살계사상 연구' (최원식) '불교율장의 정립과 대승율의 발달 연구' (박호남) '열반경의 계율사상 연구' (신성현) 등 6권을 1차로 발간했다.

성우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근원적인 데서 튼튼하게 살아 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계율관계 논문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밝히고 "많은 분들이 불교의 근본정신에 따라 수행하고 계율관계 연구자가 더욱 많아질 바란다"고 말했다. 성우스님은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배포

할 계획이다. (02)722-4588 토방) 관련 경(經)과 논(論)에 대한 연구논문은 많이 발표되었으나 계율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은 여섯편, 석사논문까지 합해 50편에 불과하다. 성우스님은 계속해서 중국과 일본의 논문을 포함, 모두 70권으로 펴낼 계획이다.



## 대학의 탐욕·오만 해부

### 소설 '무' 미국서 호평

순수한 학문과 이상을 추구하는 대학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어느 곳보다 탐욕과 오만이 가득한 장소라는 것을 풍자한 소설 <무> <원재 Moo·Knopf>가 최근 미국

에서 나와 호평받고 있다. 제목 'Moo'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한성어.

학계를 둘러싼 인간의 부조리를 해부한 이 책은 두께가 7백과운드

나 나가는 흰 재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대학과 학문의 허상을 빚어 내며 흥미를 모으고 있다. 대학 캠퍼스 중앙에 버려진 한 낡은 건물의 지하실에 갇혀 있는 하얀 재자 버츠는 대학을 구성하는 여러 사람들을 대변하는 상징물로 제시된다. 바로 인간의 고독·소외·우둔함 그리고 욕망등을 함축에 구현하고 있는 것.

물집속에 사로잡힌 현대 미국인의 실상을 우화적으로 비춘 이 소설은 그들의 무상한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나를 보게하십시오	현 장	민족사
2	불교이야기	지 목	우리
3	작은 숲사가 낙락장승되나니	윤 창 공	언어문화사
4	금강경 강의	무 비	불광
5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브라이언 와이즈	정신세계사
6	마음으로 간 미륵	주 강 현	대원정사
7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 영 한	전일문화사
8	법공양문	원 호 의	효림
9	능엄경	김 두 재	민족사
10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 의 범	시공사

구입문의: (02)737-0695

유교의 주요경전인 <대학>과 가르침의 핵심인 명덕(明德)을 불교의 시각으로 정리한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책은 '큰 진리를 곧바로 가리킨다'는 뜻을 담은 <대도直指(大道直指)> <통화총서간행회 펴냄>. 이 책은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유교의 4대 명저로 꼽히는 <대학>을 중국 명나라 때의 고승 지옥대



## 大道直指 '大學'을 불교시각으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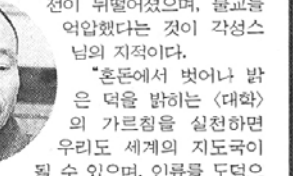
### 본연의 마음 밝혀 불성찾는 안내서

#### 각성스님 강해 통해 펴내

선조에서는 <대학>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 이전의 시대보다 문화발전이 뒤떨어졌으며, 불교를 억압했다는 것이 각성스님의 지적이다.

"혼돈에서 벗어나 밝은 덕을 밝히는 <대학>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우리도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으며, 인류를 도덕적으로 지도할 대도(大道)종교의 사명이 우리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대도直指>의 핵심주제라고 밝힌 각성스님은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순수하고 밝은 양심의 본체인 명덕, 즉 불성을 밝히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도直指>를 펴낸 통화총서간행회는 바른 깨달음과 도덕성의 회복, 사상과 종교의 통일 및 민심의 순화를 위해 그동안 화엄학회에서 각성스님이 강의한 <화엄경> <금강경> <금강삼매경론> <중용> <주역> <도덕경> <남화경(南華經)> 등 불교 유교 도교의 경전을 차례로 간행할 계획이다.



선조에서는 <대학>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 이전의 시대보다 문화발전이 뒤떨어졌으며, 불교를 억압했다는 것이 각성스님의 지적이다.

"혼돈에서 벗어나 밝은 덕을 밝히는 <대학>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우리도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으며, 인류를 도덕적으로 지도할 대도(大道)종교의 사명이 우리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대도直指>의 핵심주제라고 밝힌 각성스님은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순수하고 밝은 양심의 본체인 명덕, 즉 불성을 밝히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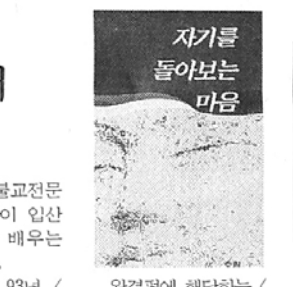
<대도直指>를 펴낸 통화총서간행회는 바른 깨달음과 도덕성의 회복, 사상과 종교의 통일 및 민심의 순화를 위해 그동안 화엄학회에서 각성스님이 강의한 <화엄경> <금강경> <금강삼매경론> <중용> <주역> <도덕경> <남화경(南華經)> 등 불교 유교 도교의 경전을 차례로 간행할 계획이다.

## 줄판화제 '초발심자경문' 해설서

### 일타스님, 3권 펴내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에 대한 해설서가 일타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에 의해 교계에서는 최초로 세 권으로 묶여 완간됐다. 도서출판 효림에서 펴냈다.

<초발심자경문>은 93년 <계초심학인문>을 풀이해 <시작하는 마음>으로, 94년에는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을 풀이한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을 펴낸 바 있다. 이번엔 <자경문>을 풀이한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을 발간함으로써 3년 만에 <초발심자경문>에 대한 완전한 해설서를 내놓았다.



완결권에 해당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에서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공부방법을 상세히 밝혀놓았다. 특히 아홉비구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49개의 에피소드를 섞어 청소년과 불교를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도 불교의 세계속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꾸몄다.

## 책방 여시아문이 마련하는

# 저자와의 만남

### 저자약력

1916년 평남 평양에서 출생한 약학박사, 서울대 명예교수, 미국 퍼듀(purdue) 대학교 대학원 졸업, 서울대 약학대 학장,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서울대 천연물화학연구소 교수, 대한 약사회, 대한 약학회, 아시아 약학회(FAPA) 회장, 한국과학지식인 협회장 등 역임,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수상.

진공 사적 외에

- 「신 동의보감」
- 「신역 동의보감」
- 「약이나 독이나」
- 「한국의 상약」
- 「약과 건강」
- 「건강하게 사는 지혜」
-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 「홍문화 박사의 건강교실」
- 「홍문화 박사의 건강수법」 등 다수.

### 책방 여시아문은

그동안 성원해 주신 고객에 대한 사은으로 저자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건강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 현대인 특히 도시인이라면 누구나 귀 기울일 만한 저자의 육성을 직접 들어 보십시오. 생명에 대한 외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저자의 건강관을 통해 건강에 대한 그릇된 통념, 미신에 가까운 건강 상식, 육체에만 국한된 기계적 건강관리, 약물에 대한 과신이 빚어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진지한 성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책방 여시아문의 정신

책과 세상의 마주 보기,  
독자와 저자의 거리 좁히기,  
진지한 독서 분위기 만들기  
앞장서겠습니다.  
고품격 독서 문화의 거름이 되겠습니다.

### 행사안내

- 때 : 1995년 4월 26일(수), 오후 3시
- 곳 : 녹수청산(현대불교신문사 사옥 지하 1층)
- 주최 : 도서출판 여시아문, 현대불교신문사
- 협찬 : 도서출판 한강수, 불광 출판부
- 참가방법 : 책방 여시아문에서 '저자와의 만남' 초대권을 배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해 주시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 후 저자 사인판매와 건강상담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홍문화 박사와 건강을 이야기 합니다(도서출판 한강수) 홍문화 박사의 건강수법(도서출판 한강수)

경희문, 녹수청산, 책방 여시아문, 평화당, 조계사, 안국동, 종로3가, 공평빌딩, 종각역, 중랑역